

해남사랑상품권 10% 할인

오늘부터 240억 원 규모...소진때까지
법인·단체 제외 개인 年400만원 이내



해남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해남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이번 할인 판매 규모는 240억원 규모로, 지난 3월 300억원 규모로 실시된 10% 할인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할인 기간은 24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법인·단체를 제외한 개인에게만 연간 400만원 이내에서 할인율을 적용한다. 군은 할인 판매를 위해 국비 19

억 2,000만원을 확보, 할인율 10% 중 8%를 국비로 지원받아 군비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히 해남사랑상품권은 7월 15일 기준 올해 770억원이 판매되면서 연말 이전에 전체 발행액 1,650억 원이 전량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에 따라 100억원 규모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해남사랑상품권을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과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해남사랑상품권은 농·축협 및 광주은행, 해남신협, 우리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등 해남군이 지정한 35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해남군 소재 3,304개 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서 액면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되며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타 지역에 있는 업소 및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7월 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환전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에서도 부정유통 단속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해남사랑 상품권 10% 특별할인 행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활용한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대상작인 김유성 작가의 '차와 함께하는 저녁'

강진군,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입상작 발표

대상 '차와 함께하는 저녁' 김유성 작가 작품 선정

제20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입상작이 발표됐다.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부문별 전문가 5인을 위촉해 엄격한 심사를 실시했으며, 전통성과 예술성, 기술성, 창의성, 기능성을 살린 작품을 입상작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김유성 작가의 '차와 함께하는 저녁'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윤태영(전통부문) 작가와 강광목 작가(디자인부문)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에는 박동은 작가(전통부문), 김정태(디자인부문) 작가의 작품이 선정됐다. 이밖에 특선 9점과 입선

17점을 포함해 31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작인 김유성 작가의 '차와 함께하는 저녁'은 청자를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한 테이블세트로, 입체화된 금장식 기술이 뛰어나고 전체적인 디자인 수준이 높아 심사위원 전원의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장인 강성곤 교수(호남대)는 청자를 고급화해 부가가치를 높인 우수 문화상품이라는 평가를 했다. 전통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된 윤태영 작가의 '청자상감모란꽃 장식문매병'은 대형의 매병형태로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조화로운 형태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과 섬세하고 뛰어난 상감기법으로 모란당초문을 흑백으로 시문해 고급청자의 기품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디자인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된 강광목 작가의 '오후의 연꽃밭'은 형태상 흔치 않은 타원형 호로서 수검으로 덧칠한 분장도의 묘미를 연리문형식으로 처리한 높은 수준의 장식기법 접목시킨 수작으로 평가받아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대상은 문체부장관 상장과 상금 1천만 원, 최우수상은 전라남도지사 상장과 상금 5백만 원이 수여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명사십리 해변서 자동차극장·멀티플렉스 운영

토요 싱싱 콘서트 취소 따른 비대면 방식 문화 향유 기회

완도군은 코로나19 방역 지침 및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 지침 등을 준수하고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0 싱싱 콘서트와 명사십리 해변 쿨 콘서트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대면 방식의 여름철 문화 향유 프로그램인 자동차극장 및 해변 멀티플렉스를 운영한다. 자동차극장은 오는 7월 25일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제2주차장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제2주차장은 자동차 1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부지와 교통 흐름이 용이해 자동차극장으로의 최적의 요건을 갖춘 장소이다. 해변을 배경으로 가로 20m, 세로 11m의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최근 개봉작인 '침입자'를 상영한다. 또한 명사십리 해변에서는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10일간 대형 멀티미디어 쇼를 운영한다. 백사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 주간에는 완도 관광, 해양치유, 해조류박람회 등 완도 홍보 영상을 상영할 뿐만 아니라 음식점 및 특산물 판매 업소 홍보를 실시한다. 특별 이벤트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러포즈 타임, 생일축하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야간에는 영화와 뮤직비디오를 방영하고 특수 조명과 레이저 쇼 등 주·야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과 이벤트를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화는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완도군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 싶은 영화 투표를 실시하여 <라라랜드>, <비긴어게인>, <정직한 후보>, <부산행>이 높은 호응을 얻어 10일 동안 번갈아가며 상영한다. 완도군 이송현 관광과장은 "국내 최고의 피서지인 명사십리 해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으로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의 건강 보호는 물론 완도의 청정 이미지를 확고히 하면서 특색 있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체재된 지역 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영수 기자

장흥 용산면, 노인일자리 사업 환경정비 실시

방치되었던 저수지 수변공원 60여명 긴급 투입



장흥군 용산면행정복지센터(면장 이시영)는 16일 용산면 운주저수지 수변공원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

는 장흥군 용산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이시영)는 16일 용산면 운주저수지 수변공원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방치되었던 저수지 수변공원을 인적이 드문 곳에 있어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화장실, 운동기구 등 시설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60여명을 긴급 투입해 대대적 정비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시영 용산면장은 "구석구석 환경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 깨끗하게 정비 해주시는 참여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함평천지농특산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